

8월 돈가는 2,600~2,700원/kg으로 전망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1. 최근 국내돈가

구제역 발생 후 지속된 고돈가가 7월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7월 15일 서울 2개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2,332/kg까지 하락하였다.

7월 돈가하락의 주 요인은 무더위로 인한 소비감소였으며, 부 요인으로는 구제역 보호지역 해제와 가공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가공두수가 감소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량이 증가한 데 있다.

그리고 6월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두수가 사상 최고로 조사되면서 심리적인 영향도 돈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8월 돈가 전망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생육 소비증가가 예상되고 고온다습한 장마가 끝남에 따라 기후가 식육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7월초의 상황과는 달리 전형적인

하절기 소비가 예상되어 8월 돈가는 2,600~2,700원/kg 수준으로 예상된다.

7월 중순까지의 실제 돼지 출하량은 조사된 사육두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일정 기준하에 조사된 사육두수를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소비증가나 현재 체화되고 있는 후지, 등안심의 적절한 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돈가하락은 명확하다.

3. 부위육 발란스와 돈가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고돈가하에서 견딜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출 수 없게 되었다. 가장 큰 요인은 후지와 등안심의 판가 하락과 재고 체화로 인해 설사 돈가가 2,500/kg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재고처리가 되지 않는 한 가공두수를 증가시키기 어렵고 돈가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확보가 실제 사업에 의미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생육 소비증가가 예상되고
 고온다습한 장마가 끝남에 따라 기후가 식육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7월초의
 상황과는 달리 전형적인 하절기 소비가 예상되어 8월 돈가는 2,600~2,700원/kg
 수준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육가공 업체와 양돈농가

현 시점에서 보면 국내 육가공 업체와 양돈 농가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더욱더 큰 문제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수입육의 증감이 국내 육가공업체나 양돈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 국내 생산육 자체의 재고 체화가 육가공업체나 양돈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5.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체화 재고 부위의 수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도 9월부터 수출되지 않는다면 육류 비수기인 동시에 돼지 출하두수가 증가하는 11월에는 돈가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구제역 발생과 전혀 무관하게 국내 돈육 수요, 공급에 의한 돈가 폭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돈농가와 육가공 업체의 생존을 위

해서는 고가 부위의 가공품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1단계로 국내 체화부위의 수출, 2단계는 체화부위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열처리 가공품으로의 수출이다.

6. 정부의 지원과 노력

수출을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돈육 시장조사, 검역관련 협상 등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면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행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7. 기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국내양돈은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국제 돈가는 급상승하여 수입산의 국내유입이 어려울 정도이고 따라서 최소 2년간은 국내 양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돈**

〈표〉 유럽 공동체(E.C) 보조금 변화

(단위: EUR/KG)

해당 품목	2000. 3. 13 이전	3. 14~	4. 11	5. 17~	6. 15~	7. 7~
전지, 햄, 전각, 어깨등심	0.4	0.35	0.25	0.15	0.15	-
머리삼겹	0.25	0.22	0.15	0.09	-	-